기보배와 함께 양궁 수업 … '텐텐텐'을 쏴라

광주여대 김성은 감독
올림픽 금메달 주인공
최미선·주현정·이승윤 선수
7개 대학 연계 프로그램 강사로
학생 100여명 참여

지난해 열린 대학 연계 클라우드형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금메달리스트들의 지도 아래 양궁을 배우고 있다. 〈광주여대 제공〉

기보배를 비롯한 양궁 금메달 리스트 '텐 텐 텐'의 주인공들이 강사로 나섰다.

런던올림픽과 리우올림픽, 베이징올림픽 등에서 개인전이나 단체전 금메달을 딴 양궁 남녀 선수 4명이 특별강사로 학생들을 지도한다.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교양기초교육원은 10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양궁 금메달리스트 4인과 함께 대학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여대를 비롯한 경일대, 대구한의대, 루터대, 목포해양대, 안양대, 호서대 등 7개 대학을 연계한 클라우드형 비교과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 인프라를 대학 간 공유함으로써 대학의 우수 교육모델을 확산하기 위함이다 .

이번 양궁 체험프로그램에는 클라우드형 컨소시엄 협약 체결 대학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강사는 전 국가대표 양궁 지도자 겸 광주여대 양궁 감독인 김성은 감독, 광주여대 출신의 기보배 선수(런던 올림픽 개인전·단체전 2관왕 및 리우 올림픽 양궁 단체전 금메달)을 비롯해 최미선 선수(리우 올림픽 양궁 단체전 금메달)·주현정 선수(베이징 올림픽 양궁 단체전 금메달)·이승윤 선수(리우 올림픽 양궁 단체전 금메달) 등이 특별 강사로 참여한다.

한편 광주여대는 지난달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에서 경일대, 대구한의대, 루터대, 목포해양대, 안양대 등과 함께 권역별 비교과 프로그램 공동운영 및 우수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공유를 위한 클라우드형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은 "앞으로도 광주여대는 다른 대학들과 공유할 수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자기주도 활동 돕는다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종)가 소통과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사회 연계 자기주도적 학생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복지학부 등 29개 학부(과) 기초교양 '자기계발과 진로탐색' 교과목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창의적 학생활동 지원과 인성교육 방식의 다각화에 초점을 두고 펼쳐진다. 특히 '자기주도적 공동체 학생활동'을 통해 창의융합과 자기주도, 소통협력, 문제해결 등의 핵심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대 교양교육원은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활동을 목표로 '문화예술 공동체'를 모집해 지원한다.

문화예술 공동체는 학생들이 5인 이상 팀을 구성, 자율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활동에 견인하고, 교양 특성화 교과목을 통한 창의·융복합 역량 향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 학기 성과 워크숍 개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학생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코로나 블루' 극복, 지혜로운 대학 생활

조선대 법학과, '동영상 크리에이티브 콘테스트' 개최

조선대학교 법학과가 '코로나19' 사태가 1년 가까이 지속되자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고, 지혜로운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한 동영상 콘테스트를 열어 화제가 됐다.

참가자들의 작품은 스트레스 해소법과 학과생활 적응하기, 나만의 공부법 등 개인적인 내용과 사회와 소통하기 같은 성인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까지 다양했다.

9일 조선대 법학과에 따르면 지난 9월 비대면 수업기간에 학생들의 '코로나 블루'를 없애고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법학과 동영상 크리에이티브 콘테스트(Creative Contest)'를 개최했다. 동영상의 주제는 ▲나만의 첨단 법학 공부 노하우 ▲법학도의 슬기로운 스트레스 해소방법 ▲법학도가 추천하는 법 관련 영화, 드라마, 만화, 게임 ▲법학과가 우리 학교, 우리 지역,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법학과에서 캠퍼스 커플 만들기 ▲법학과에서 킹카·퀸카로 살아가는 법 등이다.

법학과는 최근 심사를 통해 1등 3명, 2등 3명, 3등 1명을 각각 선정됐다. 1등으로 뽑힌 김명현 학생은 법학도가 추천하는 법 관련 드라마와 만화, 영화를 소개했다. 또 다른 1등인 정해솔 학생의 영상에서는 앱을 사용해 법전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시연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이번 콘테스트 기획자인 강혁신 법학과 학과장은 "일상이 제약된 상황에서도 콘테스트를 통해 보여준 법학과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명랑한 모습이 인상 깊고 감사했다"면서 "조선대 법학과는 자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법 관련 강연 및 홍보영상, 동영상 콘테스트 수상작들의 영상 등을 게재하며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교직원회 운영, 이렇게 해 봐요!'
광주교육청 제작·보급

광주교육청이 민주적 학교공동체 실현과 소통,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개발한 '교직원회 운영 워크북'인 '교직원회 운영, 이렇게 해 봐요!'를 제작·보급한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워크북뿐만 아니라 워크북을 요약해 제작한 리플릿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교직원회 운영 워크북'은 민주적 교직원회 운영의 필요성, 안건과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운영 방법 및 사례 등 교직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회의 절차를 '회의 전-회의 진행-회의 후'로 나눠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학교 현장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교직원회의 주요 안건 및 시나리오 예시를 수록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현석룡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민주적인 교직원회는 학교자치의 핵심 동력이다"며 "집단지성의 민주적 교직원회 운영을 통해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이를 학교 교육활동 속에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대 발간 '지역개발 연구'
학술지인용색인 등재 학술지 선정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소장 나주몽 교수)가 연 2회 자체 발간하는 학술지 '지역개발연구'가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학술지로 선정됐다.

지역개발연구는 지난 2018년도 학술지 신규평가에서 등재후보학술지에 선정된 이후 올해 계속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승격됐다.

한국연구재단은 매년 국내 수백 종의 학술지 가운데 발행의 안정성, 투고 및 게재율은 물론 학술적 가치 등을 평가해 일반학술지-등재후보학술지-등재학술지-우수등재학술지 판정을 내린다. 등재(후보)학술지는 국내 학술지 정보, 논문 정보 및 참고문헌을 DB화해 논문 간 인용관계를 분석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록되며, 인용정보는 국내 연구 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 지표가 돼 국가 R&D 정책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도 쓰인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교육대 총장들 "교대·사대 통합 추진 반대"

교총협, 반대 의견 97.7%

국가교육회의 교원양성체제 개편 집중숙의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교 총장들이 교대·사범대 통합, 교육전문대학원 포함 6년제 개편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전국초등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교총협)가 최근 교대 교수와 직원, 학생 등 87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와 중·고등학교 교원을 기르는 사범대 통합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97.7%로 나타났다.

교대 4년에 이어 교육전문대학원 2년을 공부해야 교원 자격을 주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도 95.8%를 차지했다.

교총협은 교대와 사범대 통합에 대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기 다른 체제로 운영돼왔으며 고유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객관적으로 실증적인 연구,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논의, 사회적 합의 없이 경제적 이유만으로 초·중등교원양성기관을 통합하려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협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해선 "석사학위를 소지한 교사 비율이 전체 3분의 1을 넘는 상황에서 학위 취득이 교사의 실천적 전문성을 신장시켰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반대 이유를 강조했다. 교총협은 현행 교·사대 교육은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원양성교육의 성과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13일간 이뤄졌다.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제주대, 한국교원대 등 12개 회원교 구성원들이 답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도서출판 상상인

NEXT
상상인을 찾습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에서는 우수한 시집원고를 모집합니다.

도서출판 '상상인'은 재능있는 시인들의 작품집 발간을 위해 우수한 시집원고를 수시 공모합니다. 접수받은 원고는 매분기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작품집으로 출간됩니다.

107인의 신춘문예 출신들의 상상(앤솔로지)을 시작으로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총 9권을 발간하였으며 발간 예정인 시집들도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집뿐만 아니라 평론집, 시조집, 동시집 등 다양한 작품집을 발간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도서출판 상상인은 문학사업의 일환으로 상상인 창작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우수한 시집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원고 보내실 곳 E-mail : ssaangin@hanmail.net
■ 모집원고 : 시집 한 권 분량(시 50편 이상)
■ 출간혜택 : 선인세 일백만원, 해설비 지급 등을 통하여 시집 제작.
(필요시 저자는 정가의 70%에 구입)
■ 문 의 : 010-7371-1871

지금까지 출간된 상상인 시선

상상 (앤솔로지)
붉음이 제 몸을 휜다 김 유 석
오렌지 나무를 해답으로 칠게요 최 지 하
새, 블랙박스 양 수 덕
방울을 울리며 낙타가 온다 이 선 애
그녀의 의로움은 B형 - 新 글러브 중독자 마 경 덕
사과상자의 이설 전 다 형
당신에게는 이르지 못했다 권 혁 재
메타자본세콰이어 신전 강 대 선

* 7월 발간 예정
김남수 시집 - 둥근 것을 보면 아프다

* 8월 발간 예정
정영주 시집